

최근 미취업자 변동에 대한 분석

성재민*

I. 머리말

생산가능인구 중 미취업자 비중의 최근 몇 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2009년 초반 급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아직 2008년 초반 및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는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미취업자 비중이 2008년 초반 및 그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인구변화, 미취업 상태에서의 상태변화 등 노동공급 요인과 연관시켜 분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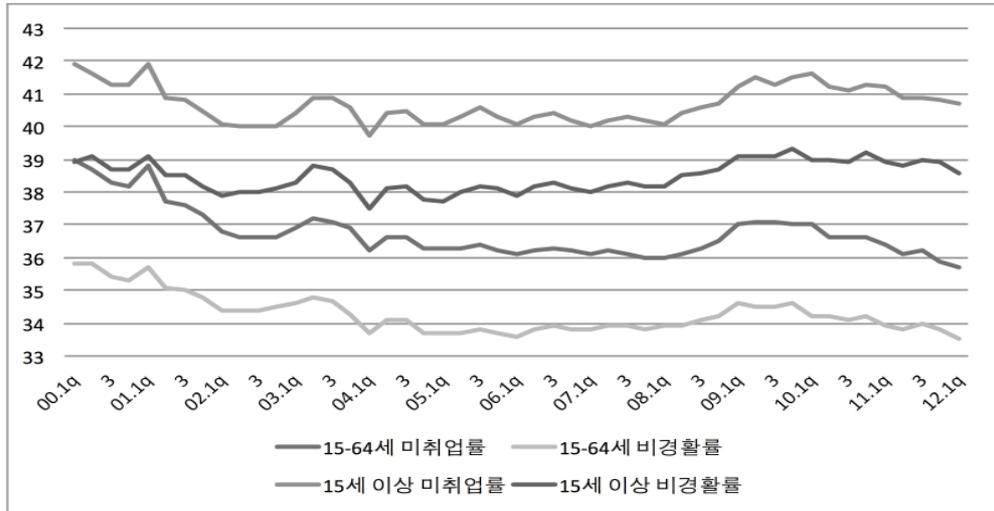
II. 미취업률이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 일자리 창출 부진 때문인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해 보면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미취업률은 2012년 1분기 현재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이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많이 활동하는 15~64세로 제한해 미취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을 계산해 보면 이미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낮아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각 연도 1분기만 비교하면 2012년 1분기 미취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면 인구변동의 영향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ongjm@kli.re.kr).

[그림 1] 미취업률 및 비경활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미취업자 비중이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지 못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측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표 1>에서는 2008년의 연령별 인구분포에 2012년 연령별 고용률을 적용할 경우, 2012년 연령별 인구분포에 2008년 연령별 고용률을 적용할 경우 전체 인구의 고용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보았다.

이 표의 1번은 2008년과 2012년의 실제 연령별 고용률을 의미한다. 즉, 15~19세의 6.6이라는 수치는 15~19세 고용률이 6.6%라는 것을 의미한다. 2번은 2008년과 2012년의 연령별 인구분포이다. 15~19세의 8.2라는 수치는 2008년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15~19세의 비중이 8.2%라는 의미이다. 5번의 첫째 줄은 $6.6\% \times 8.0\% \approx 50\%$, 즉 0.50%p로 계산된 것인데, 이는 고용률 기여분을 의미한다. 5번의 항목을 모두 합치면 57.6%라는 고용률이 계산된다. 이 고용률은 2008년 각 연령별 고용률에 2012년 생산가능인구 중 해당 연령 비중을 곱해 얻은 값이므로, 연령별 고용률은 2008년 상태일 때 인구분포만 2012년처럼 바뀐다면 고용률이 몇 %가 될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할 때 계산되는 고용률이 57.6%이므로 2008년 실제 고용률인 58.5%보다 낮다. 이는 연령대별 고용률은 2008년 상황에서 변하지 않았더라도 인구분포 변화 때문에 전체 고용률은 하락하는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2012년 고용률을 2008년 연령별 인구분포에 적용하면 6번의 하단처럼 58.7%라는 고용률이 계산된다. 이는 인구분포가 4년간 변하지 않았다면 2012년에는 57.8%가 아니라 58.7%라는, 2012년 실제 고용률뿐 아니라 2008년 실제 고용률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표 1> 연령별 고용률과 인구분포(각 연도 1분기)

(단위: %, %p)

| | I | | II | | III | IV | V | VI |
|--------|------|------|-------|-------|------|------|------|------|
| | 2008 | 2012 | 2008 | 2012 | | | | |
| 15~19세 | 6.6 | 7.1 | 8.2 | 8.0 | 0.54 | 0.57 | 0.50 | 0.60 |
| 20~24세 | 46.2 | 43.8 | 6.9 | 6.7 | 3.19 | 2.93 | 3.10 | 3.00 |
| 25~29세 | 68.2 | 69.6 | 9.9 | 8.4 | 6.75 | 5.85 | 5.70 | 6.90 |
| 30~34세 | 70.5 | 70.8 | 9.9 | 9.4 | 6.98 | 6.66 | 6.70 | 7.00 |
| 35~39세 | 74.3 | 72.6 | 11.1 | 9.8 | 8.25 | 7.11 | 7.30 | 8.00 |
| 40~44세 | 77.9 | 77.1 | 10.4 | 10.4 | 8.10 | 8.02 | 8.10 | 8.00 |
| 45~49세 | 76.9 | 77.8 | 10.7 | 10.0 | 8.23 | 7.78 | 7.70 | 8.30 |
| 50~54세 | 71.9 | 74.1 | 8.9 | 9.9 | 6.40 | 7.34 | 7.10 | 6.60 |
| 55~59세 | 63.8 | 66.4 | 6.4 | 7.7 | 4.08 | 5.11 | 4.90 | 4.20 |
| 60~64세 | 50.8 | 52.4 | 5.1 | 5.7 | 2.59 | 2.99 | 2.90 | 2.70 |
| 65~69세 | 38.5 | 37.2 | 4.8 | 4.6 | 1.85 | 1.71 | 1.80 | 1.80 |
| 70~74세 | 27.9 | 26.6 | 3.7 | 4.2 | 1.03 | 1.12 | 1.20 | 1.00 |
| 75세 이상 | 13.1 | 12.9 | 4.2 | 5.3 | 0.55 | 0.68 | 0.70 | 0.50 |
| 전 체 | 58.5 | 57.8 | 100.0 | 100.0 | 58.5 | 57.8 | 57.6 | 58.7 |

주: I은 실제 고용률, II는 연령별 인구분포, III은 2008년 고용률, 2008년 인구분포 시 고용률 기여분과 고용률이며, IV는 2012년 고용률, 2012년 인구분포 시 고용률 기여분과 고용률, V는 2008년 고용률, 2012년 인구분포 시 고용률 기여분과 고용률, VI은 2012년 고용률, 2008년 인구분포 시 고용률 기여분과 고용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연령별 고용률 기여분을 보아도 2008년 인구분포 가정 시 2012년 고용률을 대입하면(6번) 2012년 실제 고용률 기여분에 비해 젊은 층은 기여분이 작아지고 고령층은 기여분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를테면, 30~34세는 2012년 고용률을 적용할 때 2008년 인구분포 가정 시 고용률 기여분은 7.00%p였지만, 2012년 인구분포를 가정하면 6.66%p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4년 사이 해당 연령대의 인구비중이 9.9%에서 9.4%로 떨어지면서 고용률 기여분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55~59세는 2008년 인구분포에 2012년 고용률을 적용하면 고용률 기여분이 4.2%p이지만, 2012년 인구분포에 적용하면 5.11%p로 고용률 기여분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고령화로 인해 취업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주력연령대 인구 비중은 줄고 취업 비중이 낮은 50대 이상 연령층 인구 비중은 늘어남으로써 2010년부터 취업자수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전체 고용률이 증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는 Oaxaca-Blinder 분해(Oaxaca, 1973; Oaxaca & Ransom, 1999)로 알려진 방법을 통해 2008~2012년 사이 미취업률의 증가에 인구분포 변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 방법은 연령분포만 본 <표 1>과 다르게 연령, 학력, 성별 분포의 동시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2> Oaxaca-Blinder 분해로 본 미취업률 변화에서 인구학적 분포 변화의 영향

| | 미취업률 차이 분해 결과 | 분포 차이 중 학력분포로 설명되는 부분 | 분포 차이 중 연령분포로 설명되는 부분 | 분포 차이 중 성별분포로 설명되는 부분 |
|-------------------------|---------------|-----------------------|-----------------------|-----------------------|
| 2012년 미취업률 | 42.16% | | | |
| 2008년 미취업률 | 41.53% | | | |
| 2012년 미취업률 - 2008년 미취업률 | 0.63%p | | | |
| 분포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 0.35%p | -0.29%p | 0.67%p | -0.03%p |
| 분포 외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 0.28%p | | | |

주: 분해 결과 나타난 수치들은 $42.16\% - 41.53\% = 0.63\%$, $0.35\% + 0.28\% = 0.63\%$, $-0.29\% + 0.67\% - 0.03\% = 0.35\%$ 가 되는 관계에 있음. 각 년도 1분기 자료를 이용해 계산. 연령은 5세 구간, 학력은 초졸/중졸/고졸 이하, 전문대졸/대졸 및 대학원 이상으로 통제.

<표 2>를 보면, 미취업률은 2008년 41.53%에서 2012년 42.16%로 증가해 0.63%p만큼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0.63%p의 증가분 중 0.35%p만큼은 인구분포 변화로 설명되는 부분이며, 0.28%p 부분은 인구분포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런데 인구분포 변화를 요인별로 보면 같은 기간 학력분포 변화는 미취업률을 -0.29%p만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성별분포 변화는 -0.03%p만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령분포만 미취업률을 0.67%p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령분포로 인한 미취업률 증가분은 총 미취업률 증가분인 0.63%p보다 더 커서 연령분포 변화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미취업률 변동에서는 인구분포 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구분포 효과만 걷어내면 미취업률 또는 고용률의 관점에서 본 노동시장 상황이 과거보다, 즉 금융위기 이전보다 모두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총량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35~39세, 40~44세처럼 연령대에 따라 2012년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1분기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08년 1분기와 2012년 1분기를 비교할 때 35~39세, 45~49세에서 미취업률이 증가한 상태에 있으며, 여성은 35~39세, 40~44세에서 그러하다.

35~44세의 고용률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음을 감안해 44세 이하 연령대 미취업률을 학력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남성 고졸 이하는 25~29세, 30~34세, 35~39세의 미취업자 비율이 2008년 1분기보다 증가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전문대졸 이상은 25~29세, 35~39세, 40~44세에서 2008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전문대졸 이상 남성의 미취업률은 35~39세, 40~44세의 경우 각각 5.7% → 6.0%, 5.5 → 6.1%로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이하의 논의에서 재학자 비중이 매우 높은 15~19세와 20~24세는 제외한다.

<표 3> 연령별, 성별 미취업률 추이(각 연도 1분기)

(단위: %)

| | 전 체 | | | | | | 남 성 | | 여 성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08 | 2012 | 2008 | 2012 |
| 15 ~ 19세 | 92.7 | 93.4 | 94.6 | 93.8 | 92.6 | 92.9 | 94.7 | 94.3 | 92.1 | 91.4 |
| 20 ~ 24세 | 51.6 | 53.8 | 57.5 | 56.7 | 57.3 | 56.3 | 60.6 | 60.1 | 48.8 | 53.1 |
| 25 ~ 29세 | 31.9 | 31.8 | 32.9 | 32.5 | 31.8 | 30.4 | 29.5 | 29.1 | 34.2 | 31.8 |
| 30 ~ 34세 | 30.4 | 29.5 | 31.0 | 29.8 | 30.3 | 29.2 | 12.1 | 12.1 | 47.6 | 47.1 |
| 35 ~ 39세 | 25.6 | 25.7 | 27.2 | 27.9 | 26.8 | 27.5 | 8.6 | 9.1 | 43.4 | 46.6 |
| 40 ~ 44세 | 22.0 | 22.1 | 22.5 | 23.2 | 22.6 | 22.9 | 8.5 | 8.3 | 36.1 | 37.9 |
| 45 ~ 49세 | 23.3 | 23.2 | 23.7 | 24.0 | 23.0 | 22.2 | 9.7 | 9.9 | 36.8 | 34.8 |
| 50 ~ 54세 | 29.3 | 28.1 | 27.3 | 27.4 | 27.0 | 26.0 | 13.2 | 12.5 | 43.2 | 39.4 |
| 55 ~ 59세 | 38.1 | 36.2 | 36.8 | 36.5 | 35.4 | 33.6 | 21.7 | 19.2 | 50.5 | 47.9 |
| 60 ~ 64세 | 47.9 | 49.2 | 49.3 | 50.1 | 48.6 | 47.6 | 35.1 | 33.9 | 62.4 | 60.6 |
| 65 ~ 69세 | 60.8 | 61.6 | 61.8 | 65.1 | 63.9 | 62.8 | 49.4 | 50.6 | 71.6 | 73.0 |
| 70 ~ 74세 | 71.8 | 72.1 | 73.0 | 73.5 | 73.8 | 73.4 | 63.4 | 63.3 | 78.7 | 81.2 |
| 75세 이상 | 87.1 | 87.0 | 87.6 | 89.1 | 88.5 | 87.1 | 78.8 | 80.5 | 91.0 | 90.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여성의 경우에는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40~44세에서 약간 증가한 상태일 뿐, 다른 연령대는 모두 미취업률이 감소했다. 고졸 이하 여성의 경우 30~34세, 35~39세, 40~44세 등 30대를 중심으로 한 연령대에서 미취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표 4> 성, 연령, 학력별 미취업률 변화

(단위: %)

| | | 고졸 이하 | | 전문대졸 이상 | |
|-----|----------|-------|------|---------|------|
| | | 2008 | 2012 | 2008 | 2012 |
| 남 성 | 20 ~ 24세 | 63.1 | 62.5 | 41.2 | 39.3 |
| | 25 ~ 29세 | 37.6 | 38.0 | 22.1 | 22.7 |
| | 30 ~ 34세 | 14.8 | 16.9 | 10.2 | 9.5 |
| | 35 ~ 39세 | 11.5 | 13.7 | 5.7 | 6.0 |
| | 40 ~ 44세 | 11.0 | 10.8 | 5.5 | 6.1 |
| | 20 ~ 44세 | 27.2 | 29.9 | 11.8 | 11.4 |
| 여 성 | 20 ~ 24세 | 60.4 | 65.7 | 29.2 | 30.8 |
| | 25 ~ 29세 | 44.6 | 42.1 | 29.0 | 28.0 |
| | 30 ~ 34세 | 52.2 | 54.7 | 43.6 | 43.0 |
| | 35 ~ 39세 | 42.6 | 50.1 | 44.6 | 43.7 |
| | 40 ~ 44세 | 34.9 | 35.4 | 39.1 | 41.7 |
| | 20 ~ 44세 | 45.7 | 49.2 | 36.9 | 37.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표 5>에서는 이들 연령대 남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2008년에 비해 25~39세 남성 저학력자의 경우 ‘실업+구직활동’ 비율이 증가했으며,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도 증가했다.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실업+구직활동’ 비율은 25~29세를 제외하면 줄었고, ‘쉬었음’은 각 연령대에서 약간씩 늘었다. 수치 변동을 살펴볼 때 늘어난 미취업자들은 모두 ‘실업+구직활동’과 ‘쉬었음’에 나뉘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령대의 특성상 ‘쉬었음’은 구직활동 등을 잠시 중단하고 쉬었다는 의미에 가깝다. 실제 25~44세 남성 직장 유경험자로 ‘쉬었음’이라 응답한 사람들 중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은 2012년 1분기 기준 60.7%로 나타나 ‘실업+구직활동’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인 79.6%보다는 낮지만, ‘취업준비중’

<표 5> 남성 연령구간별,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 | | 25~ | 30~ | 35~ | 40~ | 전체 | 25~ | 30~ | 35~ | 40~ | 전체 |
|---------|-------------------|-------|-------|-------|-------|----------|-------|-------|-------|-------|----------|
| | | 29세 | 34세 | 39세 | 44세 | (25~44세) | 29세 | 34세 | 39세 | 44세 | (25~44세) |
| | | 2008 | | | | | 2012 | | | | |
| 고졸 이하 | 취업+일하였음+일시휴직+발령대기 | 62.5 | 85.3 | 88.5 | 89.0 | 81.8 | 62.0 | 83.1 | 86.4 | 89.2 | 81.1 |
| | 실업+구직활동 | 6.7 | 5.1 | 3.5 | 3.7 | 4.7 | 6.8 | 4.3 | 4.5 | 2.5 | 4.3 |
| | 육아 | 0.0 | 0.1 | 0.0 | 0.1 | 0.1 | 0.0 | 0.0 | 0.0 | 0.0 | 0.0 |
| | 가사 | 0.1 | 0.3 | 0.6 | 0.8 | 0.4 | 0.2 | 0.1 | 0.2 | 0.5 | 0.3 |
| | 통학 | 20.0 | 1.2 | 0.5 | 0.1 | 5.1 | 18.3 | 1.6 | 0.5 | 0.3 | 4.7 |
| | 취업준비+진학준비 | 3.5 | 0.5 | 0.5 | 0.1 | 1.1 | 4.1 | 1.4 | 0.4 | 0.1 | 1.4 |
| | 심신장애 | 1.0 | 1.8 | 1.1 | 1.3 | 1.3 | 0.9 | 1.9 | 1.9 | 1.4 | 1.5 |
| | 쉬었음 | 5.4 | 5.5 | 4.8 | 4.3 | 5.0 | 7.3 | 7.4 | 5.8 | 5.8 | 6.5 |
| | 기타+군입대대기+결혼준비 | 0.8 | 0.3 | 0.4 | 0.5 | 0.5 | 0.4 | 0.2 | 0.4 | 0.2 | 0.3 |
|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전문대졸 이상 | 취업+일하였음+일시휴직+발령대기 | 78.0 | 89.9 | 94.4 | 94.5 | 89.2 | 77.4 | 90.6 | 94.0 | 94.0 | 89.4 |
| | 실업+구직활동 | 4.9 | 2.9 | 2.0 | 2.4 | 3.0 | 7.0 | 2.6 | 2.0 | 2.2 | 3.3 |
| | 육아 | 0.0 | 0.0 | 0.0 | 0.1 | 0.0 | 0.0 | 0.0 | 0.2 | 0.1 | 0.1 |
| | 가사 | 0.0 | 0.1 | 0.1 | 0.2 | 0.1 | 0.0 | 0.1 | 0.1 | 0.1 | 0.1 |
| | 통학 | 6.7 | 1.7 | 0.5 | 0.2 | 2.3 | 4.7 | 1.5 | 0.5 | 0.2 | 1.6 |
| | 취업준비+진학준비 | 7.5 | 3.3 | 1.0 | 0.7 | 3.1 | 7.3 | 2.5 | 1.0 | 0.3 | 2.6 |
| | 심신장애 | 0.4 | 0.2 | 0.4 | 0.1 | 0.3 | 0.2 | 0.3 | 0.0 | 0.3 | 0.2 |
| | 쉬었음 | 2.2 | 1.9 | 1.5 | 1.7 | 1.8 | 3.0 | 2.3 | 1.9 | 2.8 | 2.5 |
| | 기타+군입대대기+결혼준비 | 0.4 | 0.2 | 0.2 | 0.3 | 0.3 | 0.3 | 0.1 | 0.3 | 0.1 | 0.2 |
|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고졸 이하에는 상급학교 재학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인 26.0%나 취업을 위한 학원 통학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인 39.1%보다는 월등히 높아 이와 같은 추측이 틀리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새로 이직한 사람들이 해당 집단에 많고, 또 오래 그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여성도 학력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여성은 증가된 미취업자가 대부분 육아, 가사로 흡수되어 남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여성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미취업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할 때 육아 또는 가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강하다. 가사노동이 주로 여성의 몫인 현실의 반영일 것인데, 이로 인해 취업의사의 강도를 실업, 쉬었음 등의 항목으로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이를

〈표 6〉 여성 연령구간별,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 | | 25~ | 30~ | 35~ | 40~ | 전체 | 25~ | 30~ | 35~ | 40~ | 전체 |
|---------|-------------------|-------|-------|-------|-------|----------|-------|-------|-------|-------|----------|
| | | 29세 | 34세 | 39세 | 44세 | (25~44세) | 29세 | 34세 | 39세 | 44세 | (25~44세) |
| 고졸 이하 | | 2008 | | | | | 2012 | | | | |
| | 취업+일하였음+일시휴직+발령대기 | 55.5 | 47.9 | 57.5 | 65.1 | 57.8 | 57.9 | 45.3 | 49.9 | 64.6 | 55.8 |
| | 실업+구직활동 | 3.0 | 1.9 | 1.4 | 1.7 | 1.8 | 2.9 | 1.6 | 2.3 | 2.0 | 2.1 |
| | 육아 | 22.6 | 34.5 | 17.1 | 3.8 | 17.1 | 17.8 | 36.8 | 17.5 | 4.5 | 16.4 |
| | 가사 | 8.2 | 12.6 | 21.9 | 27.7 | 19.9 | 9.1 | 12.5 | 28.0 | 26.7 | 21.8 |
| | 통학 | 5.5 | 1.4 | 0.5 | 0.2 | 1.4 | 5.0 | 0.6 | 0.6 | 0.5 | 1.2 |
| | 취업준비+진학준비 | 0.6 | 0.3 | 0.1 | 0.1 | 0.2 | 0.5 | 0.4 | 0.1 | 0.1 | 0.2 |
| | 심신장애 | 0.5 | 0.4 | 0.7 | 0.6 | 0.6 | 0.8 | 0.8 | 0.3 | 0.5 | 0.6 |
| | 쉬었음 | 3.5 | 0.9 | 0.7 | 0.7 | 1.1 | 5.4 | 1.6 | 1.4 | 1.0 | 1.8 |
| | 기타+군입대대기+결혼준비 | 0.7 | 0.2 | 0.2 | 0.1 | 0.2 | 0.7 | 0.4 | 0.1 | 0.0 | 0.2 |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전문대졸 이상 | | 2008 | | | | | 2012 | | | | |
| | 취업+일하였음+일시휴직+발령대기 | 71.2 | 56.5 | 55.5 | 60.9 | 61.9 | 72.1 | 57.0 | 56.3 | 58.3 | 61.4 |
| | 실업+구직활동 | 3.2 | 1.2 | 1.0 | 0.7 | 1.8 | 3.6 | 1.7 | 1.3 | 1.3 | 2.1 |
| | 육아 | 9.9 | 32.3 | 22.1 | 4.6 | 18.0 | 9.6 | 29.6 | 24.4 | 6.3 | 18.2 |
| | 가사 | 4.6 | 6.3 | 18.9 | 32.0 | 12.6 | 3.3 | 7.4 | 16.0 | 32.6 | 13.2 |
| | 통학 | 5.0 | 0.9 | 0.7 | 0.3 | 2.2 | 3.6 | 0.8 | 0.2 | 0.5 | 1.4 |
| | 취업준비+진학준비 | 3.6 | 0.8 | 0.4 | 0.2 | 1.6 | 4.0 | 1.1 | 0.4 | 0.3 | 1.6 |
| | 심신장애 | 0.0 | 0.1 | 0.1 | 0.4 | 0.1 | 0.1 | 0.1 | 0.2 | 0.1 | 0.1 |
| | 쉬었음 | 2.1 | 1.6 | 1.3 | 0.6 | 1.6 | 3.5 | 1.9 | 1.1 | 0.7 | 1.9 |
| | 기타+군입대대기+결혼준비 | 0.4 | 0.3 | 0.1 | 0.3 | 0.3 | 0.3 | 0.4 | 0.0 | 0.1 | 0.2 |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주: 고졸 이하에는 상급학교 재학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보면 육아, 가사에서 곧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몇 년 사이 미취업률이 크게 증가했다면 설령 미취업 상태에 이른 여성들이 주로 가사나 육아를 하고 있더라도 고용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일자리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나빠진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차이가 있다면, 전문대졸 이상 여성은 40-44세를 제외하고는 취업, 일하였음, 일시휴직, 발령대기가 증가해 고용상황이 개선된 반면, 40-44세에서만 이 범주 비중이 약간 줄었는데 주로 육아 쪽으로 이동했다. 이는 최근 여성 고학력자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만혼화에 따른 늦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일종의 뒤늦은 M커브 현상이 아닌가 추측된다. 여성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우 35-39세에서 증가된 미취업자 대부분이 육아가 아니라 가사로 이동했다는 점을 보면 그런 추론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여성도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기 이전, 또는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정도 회복이 진행되었고 인구변동을 감안하면 금융위기 이전보다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전체적인 노동시장 상황에서 여전히 젊은 저학력자 집단만큼은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빠져나가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늘어난 해고 등 실업으로의 진입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것인지 분석하겠다.

III. 미취업으로의 진입과 탈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직 시점을 질문한다. 그만둔 연도와 월을 질문하므로 이 변수와 조사연월 변수를 이용하면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Kaizt(1970)로 거슬러 올라가는 실업진입과 이탈, 평균기간을 연구하는 전통에서는 바로 이 변수와 실업자 수를 이용해 실업진입률, 탈출률, 평균실업기간 변화를 연구해 왔다. 매달의 실업 진입자 수와 이탈자 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미취업상태에 빠진 지 한 달 이내인 사람들을 실업 진입자로 정의하면 해당 월의 실업 진입률, 실업에서 고용으로의 탈출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실업자 수 정보는 매달 조사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매우 빠르게 실업자가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해당 월(t기) 실업 진입자 수와 실업 탈출자 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Shimer(2012)²⁾는 여기에 더해 한 달 간격으로 조사되는 경제활동인

구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한 달 이내에 실업했다가 취업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은 실업 진입자로 잡히지 않아 실업 진입률이 축소되는 ‘time aggregation’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실업진입이 포아송(poisson) 분포를 한다는 가정하에 수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³⁾ 여기서는 이 방법을 이용해 실업 진입률과 이탈률을 계산하여 두 확률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인구집단별로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 방법의 한계를 밝히자면, 전직이 있는 미취업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전직이 없는 미취업자군의 새로운 합류와 이탈은 제외한 상태에서 분석하게 된다는 점이다. 전직 실업자와 전직이 없는 실업자 사이에 심대한 노동시장 양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전직이 없는 실업자가 대다수라면 본 분석결과가 상당히 제한적 함의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직 실업자가 취업이 어려우면 전직이 없는 실업자도 취업이 어려운 법이고, 평생 주부로만 살다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이 있는 40대 후반, 50대 여성 노동시장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 20대 노동시장 분석에는 다소 약점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양상을 보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6개의 그림 모두에서 2007년 1분기와 2008년 1분기에 비해 2009년 1분기 이후 미취업 진입률과 취업으로의 입직률 모두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2년 1분기에도 똑같이 관찰된다. 전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좌측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입직률은 2009년 1분기까지 하향하다가 2010년 1분기 큰 폭으로 상승한 후 2011년 1분기까지 유지되다가 2012년 1분기에 소폭 하락한 것처럼 보인다. 미취업 진입률은 2008년 1분기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 1분기와 2010년 1분기까지 상승한 후 다소 하락하는 모양새다. 우측 첫 번째 그림은 남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입직률은 2008년 1분기에 크게 하락한 후 2009년 1분기에 미미하게 상승하였다가 2010년 1분기, 2011년 1분기까지 대폭 상승 후 다시 2012년 1분기에는 하락하였다. 미취업 진입률은 2008년 1분기에 하락했다가 2009년 1분기를 거쳐 2010년 1분기까지 상승하였다가 2011년 1분기 및 2012년 1분기까지 소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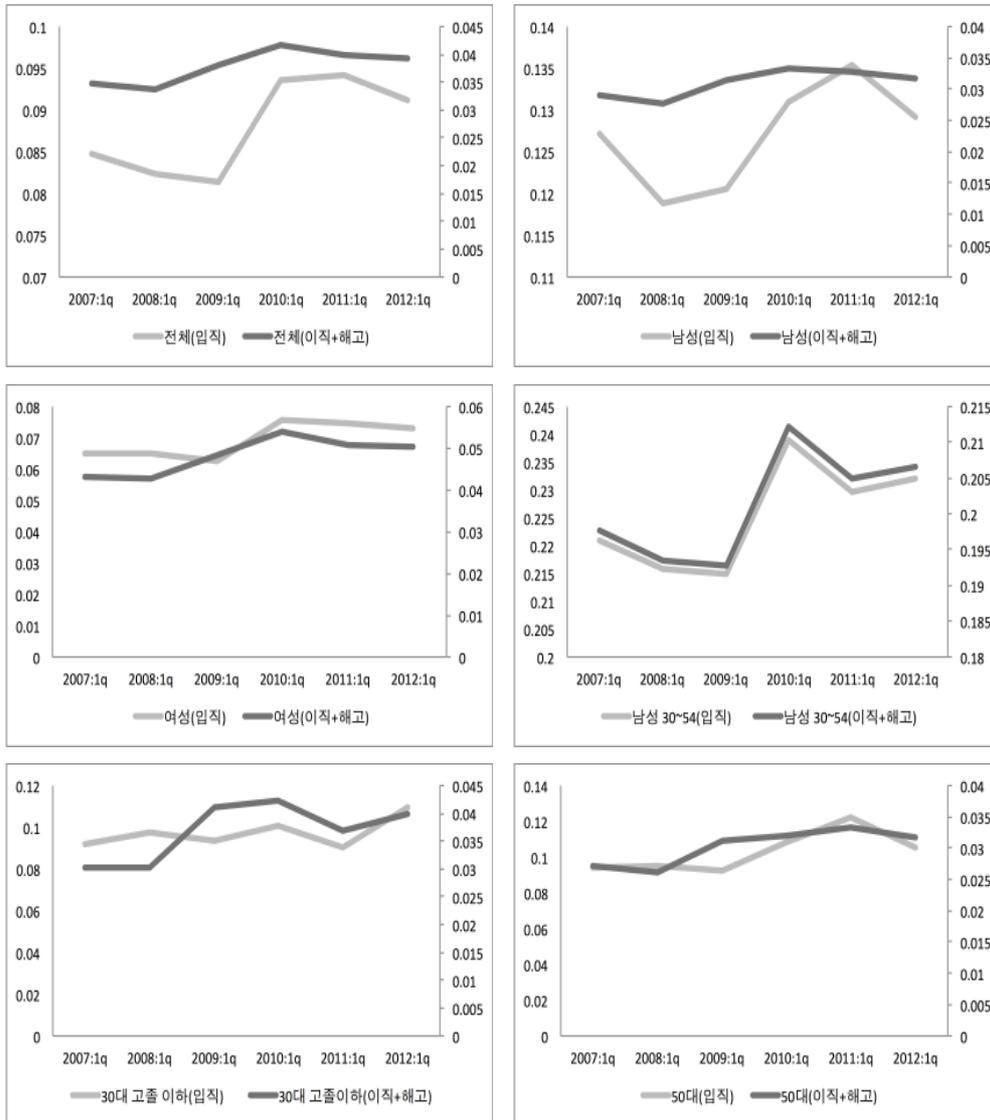
여성 입직률은 2009년 1분기까지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0년 1분기에 상승한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입률은 2009년 1분기에 상승한 후 2011년 1분기 및 2012년 1분기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 주력 연령대라 할 수 있는 30-54세는 진입률과 입직률이 똑같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문제가 되는 30대 고졸 이하의 입직률을 보면 2012년 1분기에 다소 올랐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며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

2) 이 논문은 2005년과 2007년에 워킹페이퍼로 발간 및 수정되어 회람되면서 유명해졌으므로 보통 문헌에 ‘Shimer(2005)’나 ‘Shimer(2007)’로 인용되며, 이후 이루어진 대부분의 실업 유량 연구에서 이 논문에서 개발된 ‘time aggregation’ 수정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3) 자세한 내용은 Shimer(2012)를 참조.

[그림 2] 인구집단별 미취업 진입률('이직+해고')과 취업으로의 입직률('입직')



주: 입직은 좌측 축, 이직+해고는 우측 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진입률은 2008년 1분기 이후 급증해 2010년 1분기까지 이어진 후 2011년 1분기에 떨어졌다가 2012년 1분기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미취업으로의 진입이 증가했다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것이 30대 고졸 이하 미취업률 정체의 원인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2012년 1분기에는 취업 진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30대 고졸 이하의 취업 상황이 다소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30대 고졸 이하 미취업 진입

자 표본수가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난 착시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4) 마지막으로 취업자 수가 급증해 온 50대를 보면, 입직률은 2010년 1분기와 2011년 1분기까지 증가한 후 2012년 1분기에는 소폭 하락한 모습이며, 미취업 진입률은 2009년 1분기 이후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이다. 이를 보면 50대 미취업 감소는 미취업 진입률이 2009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입직률이 2010, 2011년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진입과 입직이 둘 다 과거보다 활성화된 상태이며 입직이 2012년 1분기에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아 어쩌면 과거 직장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볼 때 취업자 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입직과 미취업 진입 양면에서 노동시장 유량(flow)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증가된 유량은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증가한 유량이 해고가 여전히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고용이 회복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표 7>~<표 9>에서는 미취업 상태가 1개월 이하5)인 사람들을

<표 7> 전체 및 50대 미취업 신규 진입자의 이직사유 분포

(단위: %)

| | 전 체 | | | | | | 50대 |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개인, 가족 관련 이유 | 39.0 | 35.3 | 34.3 | 35.8 | 37.6 | 40.0 | 23.9 | 26.7 | 23.1 | 26.2 | 29.1 | 30.4 |
| 육아 | 1.4 | 1.8 | 1.8 | 1.7 | 1.8 | 2.0 | 0.4 | 0.2 | 0.0 | 0.2 | 0.2 | 0.2 |
| 가사 | 1.1 | 1.6 | 1.6 | 1.9 | 1.7 | 1.6 | 1.6 | 1.1 | 2.2 | 2.7 | 1.5 | 2.5 |
| 심신장애 | 0.8 | 0.8 | 0.6 | 0.5 | 0.4 | 0.2 | 1.0 | 1.0 | 0.5 | 1.2 | 0.4 | 0.2 |
| 정년퇴직, 연로 | 1.7 | 1.9 | 1.5 | 1.2 | 1.3 | 1.5 | 3.2 | 3.1 | 2.5 | 2.2 | 2.2 | 2.0 |
|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 12.1 | 13.6 | 10.0 | 12.6 | 11.3 | 12.4 | 2.7 | 6.2 | 3.0 | 4.6 | 5.4 | 5.3 |
| 직장의 휴업, 폐업 | 2.1 | 2.7 | 4.7 | 2.1 | 2.0 | 2.2 | 1.0 | 1.7 | 4.0 | 1.7 | 1.9 | 2.9 |
|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 2.6 | 2.6 | 6.3 | 3.2 | 2.8 | 2.5 | 4.4 | 3.4 | 6.7 | 4.4 | 4.0 | 3.0 |
|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 18.4 | 21.3 | 18.6 | 23.0 | 24.2 | 22.4 | 27.4 | 26.2 | 23.8 | 28.2 | 28.9 | 25.2 |
| 일거리가 없어서/사업경영 악화 | 19.4 | 17.2 | 19.4 | 16.0 | 14.1 | 14.1 | 33.4 | 28.5 | 31.7 | 27.3 | 24.1 | 27.4 |
| 기타 | 1.2 | 1.4 | 1.3 | 2.1 | 2.9 | 1.2 | 1.1 | 1.8 | 2.4 | 1.3 | 2.5 | 0.9 |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자발적 이직 비중 | 54.5 | 53.1 | 48.2 | 52.4 | 52.7 | 56.1 | 29.5 | 35.2 | 28.9 | 34.8 | 36.6 | 38.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 4) 분기별로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는 인구집단을 좁힐수록 미취업 진입자 수가 줄어들어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차이가 없다고 간주하는 보수적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5) 정확히는 6주 이내일 것이다. 전월에 이직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월초에 직장을 그만두었을 수도 월말에 그만두었을 수도 있는데, 월초일 경우 조사시점까지 대략 6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표 8> 성별 미취업 신규 진입자의 이직사유 분포

(단위: %)

| | 남 성 | | | | | | 여 성 |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개인, 가족 관련 이유 | 35.0 | 29.7 | 27.7 | 31.4 | 32.6 | 34.0 | 42.9 | 40.4 | 40.2 | 39.7 | 42.1 | 45.5 |
| 육아 | 0.0 | 0.0 | 0.0 | 0.1 | 0.0 | 0.0 | 2.8 | 3.5 | 3.4 | 3.2 | 3.5 | 3.7 |
| 가사 | 0.0 | 0.0 | 0.2 | 0.1 | 0.0 | 0.0 | 2.2 | 3.0 | 2.8 | 3.5 | 3.1 | 2.9 |
| 심신장애 | 1.0 | 1.0 | 0.7 | 0.7 | 0.5 | 0.2 | 0.7 | 0.6 | 0.5 | 0.4 | 0.2 | 0.2 |
| 정년퇴직, 연로 | 2.6 | 3.0 | 2.4 | 1.8 | 1.8 | 2.3 | 0.9 | 0.8 | 0.7 | 0.8 | 0.9 | 0.7 |
|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 13.6 | 14.8 | 11.1 | 15.4 | 12.6 | 14.2 | 10.7 | 12.4 | 9.0 | 10.1 | 10.2 | 10.8 |
| 직장의 휴업, 폐업 | 2.1 | 2.7 | 5.5 | 2.1 | 1.9 | 2.8 | 2.1 | 2.7 | 3.9 | 2.1 | 2.1 | 1.7 |
|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 3.2 | 2.8 | 6.9 | 3.7 | 3.9 | 3.0 | 2.0 | 2.3 | 5.7 | 2.7 | 1.8 | 2.1 |
|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 17.0 | 21.5 | 18.4 | 22.0 | 24.3 | 24.5 | 19.8 | 21.0 | 18.8 | 23.9 | 24.1 | 20.5 |
| 일거리가 없어서/사업경영 악화 | 24.0 | 22.7 | 25.8 | 20.9 | 19.4 | 18.0 | 15.0 | 12.3 | 13.6 | 11.6 | 9.4 | 10.6 |
| 기타 | 1.5 | 1.8 | 1.2 | 2.0 | 3.1 | 1.1 | 0.9 | 1.0 | 1.4 | 2.1 | 2.6 | 1.2 |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자발적 이직 비중 | 49.6 | 45.5 | 39.7 | 47.5 | 45.7 | 48.4 | 59.3 | 59.9 | 55.9 | 56.8 | 59.1 | 63.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대상으로 이직사유를 분석해 보았다. 새롭게 이직하는 사람들의 이직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1개월 이하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 <표 7>에서 전체 1개월 이하 미취업자의 이직사유를 보면 개인, 가족 관련 이유에 의한 이직은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의 휴폐업, 명예, 조기퇴직, 일거리가 없어서 등은 2009년보다 확연히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라 볼 수 있는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만 2009년보다 높은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대체로 자발적 이직 비중이 높고 경기가 나빠지면 비자발적 이직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적어도 2009년 이후에는 각 연도 1분기 전체 신규 미취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줄고,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2009년 48.2%→2012년 56.1%).

50대에 국한해 보아도 2009년 이후 각 연도 1분기에 발생한 1개월 이하 미취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증가해 왔다. 성별로 나누어보더라도 남녀 모두에서 공히 자발적 이직 비중이 2009년 이래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30대를 학력별로 나누어 보더라도 역시 자발적 이직의 비중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이와 같이 볼 때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증가된 미취업 진입률이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제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 이직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으로의 입직률도 마찬가지다. 다만, 30대 저학력자의 경우 이직이 크게 늘어난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입직은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연령대와 학력에 비해 미취업률에서 개선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위기 때는 해고로, 그 이후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자발적인 이직이 증가했지만, 연령 특성상 중간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경향이 강한 30대 저학력자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취업률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⁶⁾

<표 9> 30대 학력별 미취업 신규 진입자의 이직사유 분포

(단위: %)

| | 30대 고졸 이하 | | | | | | 30대 전문대졸 이상 |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개인, 가족 관련 이유 | 24.7 | 27.8 | 28.6 | 26.8 | 29.1 | 33.8 | 25.4 | 35.6 | 29.1 | 35.5 | 33.7 | 30.6 |
| 육아 | 5.2 | 6.5 | 3.7 | 5.4 | 4.7 | 5.2 | 7.9 | 7.2 | 12.6 | 9.7 | 12.7 | 15.6 |
| 가사 | 2.5 | 3.3 | 2.3 | 5.0 | 3.7 | 1.7 | 0.8 | 4.0 | 1.3 | 1.5 | 2.0 | 2.2 |
| 심신장애 | 0.6 | 0.6 | 0.1 | 0.2 | 0.2 | 0.0 | 0.6 | 0.0 | 0.0 | 0.0 | 0.0 | 0.2 |
| 정년퇴직, 연로 | 0.0 | 0.1 | 0.0 | 0.0 | 0.0 | 0.0 | | | | | | |
|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 16.2 | 15.8 | 15.9 | 22.6 | 19.2 | 18.9 | 27.5 | 21.7 | 13.8 | 15.8 | 17.6 | 20.9 |
| 직장의 휴업, 폐업 | 4.1 | 6.2 | 7.8 | 3.1 | 3.2 | 4.7 | 4.4 | 4.7 | 8.9 | 5.6 | 3.3 | 3.5 |
|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 3.8 | 2.8 | 6.9 | 3.4 | 3.3 | 3.0 | 1.6 | 2.3 | 8.6 | 4.4 | 2.3 | 3.5 |
|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 16.0 | 12.5 | 11.1 | 12.1 | 20.0 | 15.5 | 9.8 | 8.8 | 14.2 | 18.1 | 17.4 | 13.3 |
| 일거리가 없어서/사업경영 악화 | 25.9 | 23.5 | 22.8 | 20.2 | 13.8 | 15.4 | 19.5 | 13.1 | 11.3 | 6.7 | 8.3 | 8.6 |
| 기타 | 1.0 | 1.0 | 0.9 | 1.1 | 2.8 | 1.9 | 2.4 | 2.4 | 0.3 | 2.9 | 2.8 | 1.7 |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자발적 이직 비중 | 49.2 | 54.0 | 50.6 | 60.0 | 56.8 | 59.7 | 62.3 | 68.6 | 56.7 | 62.4 | 65.9 | 69.4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분기.

IV. 맺음말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하면, 국제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고용률 추이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분포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약 연령별 인구 분포가 2008년과 같다면 2012년 연령별 고용률을 가정할 때 이미 2008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용률 개선으로 인한 미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44세 이하의 젊은 층 저학력자 중심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동일 연령대 남성은 5~6%대의 낮은 미취업률이 유지되고 있었고, 여성의 경우엔 40~44세 여성의 경우만 약간의

6) 2012년 5월호 노동리뷰 통계프리즘을 보면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간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김복순, 2012). 이 자료에 보면 상위 소득, 하위 소득 일자리는 증가했는데, 대졸자 및 50대 이상 고령층 고용률 증가가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부진이 보였는데 이러한 미취업자 증가분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상태 중 ‘육아’에 집중되어 고학력 여성의 만혼과 늦은 출산에 따른 뒤늦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원인이 아닌가 추측되었다.

미취업으로의 진입과 탈출을 분석한 결과, 국제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그 이후에 미취업으로의 진입과 취업으로의 탈출이 모두 증가해 노동시장 유량(flow)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30대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경우에만 입직에 큰 변화가 없는 데, 미취업 진입이 크게 증가했다가 감소폭이 크지 않으면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회복기에도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직사유별로 보면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컸던 2009년 1분기에는 자발적 이직이 크게 늘었지만, 그 이후에는 자발적 이직 비중이 증가했다. 입이직 분석에서 아직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노동시장 유량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유량이 감소하지 않는 배경에는 자발적 이직 증가가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취업자 전체를 보나 문제가 되는 30대 고졸 이하 집단을 보나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자발적 이직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문제, 전망의 문제, 지금 수준의 직장에 다니는 것이 발생시키는 기회비용의 크기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 다른 연령대나 집단에서도 자발적 이직 비중이 증가하는 데 유독 30대 고졸 이하 등 젊은 저학력층에서만 고용률이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연령 특성상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이 되는 중간 수준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 재진입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KLI**

<참고문헌>

김복순(2012), 「금융위기 이후 중간임금계층의 변화」, 『노동리뷰』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Kaitz, Hyman B.(1970), “Analyzing the Length of Spells of Unemployment,” *Monthly Labor Review* 93, pp.10~20.

Oaxaca, Ronald(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3), pp.693~709.

Oaxaca Ronald L., and Michael R. Ransom(1999), “Identification in Detailed Wage Decompositio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1(1) pp.154~157

Shimer, Robert(2012), “Reassessing the ins and outs of unemployment,”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5, pp.127~148.